

발 표 요 지

1981

第3次 瞻星臺 討論會

1981. 6. 6-7

瞻星臺偶得

延世大 閔 泳 珪

I

三國遺事에 日官에 관한 기록만도 五·六次, 그리고 桴星歌, 兜率歌에 얹힌 이야기 등 瞻星臺와 관련을 가진 記事가 적지 않은데, 그동안 報告된 많은 學者들의 調查研究에서 一切 考慮의 對象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 것을 나는 무척 안타까웁게 생각합니다. 禪家에 指月の 비유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볼 생각도 않고 손가락의 됃됨만 가지고 曰可曰否한다는 이야기입니다. 淸성대의 됃됨만 가지고 曰可曰否하다 보니, 그것이 天文臺다 아니다 祭壇이다. 등등, 決着이 없는 論難으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三國遺事 景德王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景德王에겐 王位를 이어 줄 王子가 없어서 王妃를 두번씩 맞아들이고, 그리고 天機를 알아 보려고 두차례에 걸쳐 表訓大德을 天界로 올려 보냅니다. 세번째로 表訓을 接見하면서, 天帝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天界와 人界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법인데, 너는 마치 이웃마을이나 되는듯이 뻔질나게 드나들며 天界의 機密을 함부로 흘리려 드니 될 법이나 한 일인가. 나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렷다』 (帝又曰, 天與人不可亂, 今師往來如隣里, 漏洩天機, 今後宜更否可通). 이렇게 해서 얻은 王

子가 惠恭王이 됩니다. 天機를 漏洩한다고 꾸지람을 듣기까지 表訓이 드나들던 天界는, 그러니까 人界 곧 下界로부터 손쉽게 犯接해서는 아니될 禁斷의 區域이었다는 점, 오늘의 瞻星臺가 보여 주는 構造上的 特徵을 설명해 줄 결정적인 열쇠를 간직한 대목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瞻星臺에서 가장 不可思議한 것은 그 入口입니다. 前面平地에서 두 길도 넘을 높은 位置에 四角으로 뚫린 入口는, 어떤 특수한 補助手段의 도움이 없이 出入이 不可能하게 되어 있습니다. 出入이 拒否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壯大하고 完壁한, 그리고 獨立된 規模의 石造建物에서 그 内部로 통하는 길이 이렇게 拒否 또는 制限되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設計者의 意圖가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一行이 瞻星臺 現場에 모여서 여러 專門家들로부터 그동안 實測을 통해서 얻어진 所見을 들었습니다. 그중 南天祐교수의 報告에서 入口 문턱이 될 橫石의 左右 兩端에 한 뼘만 가량 길이의 좁은 홈이 두줄씩 패어져 있었다는 實測과 함께, 아마 정녕 나무사다리(木梯) 끝에 마련한 갈퀴리 같은 것을 여기에 固定시켰던 자국이 아닐까 하는 意見을 첨가해주셨습니다. 나로서는 참으로 대단한 새로운 見聞이었습니다. 表訓大德이 무서워서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던 光景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宋相庸교수가 要約해 주신 「淸성대에 관한 학설들」은, 나 같은 新參者에게 더없이 有益한 강연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淸성대가 果是 天文臺였었던가, 아니면 단순한 祭壇이었었던가? 여기서 만일 新參者로서의 내 意見이 許容된다면, 그것은 정녕 古典的인 意味에서 天文臺였음에 틀림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굳이

「古典的인 意味」라고 制限하려는 뜻인즉, 新羅 당시 天文臺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天文臺와의 사이에 그 意味內容에 있어 상당한 距離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이러한 命題는 選舉가 있을 때마다 우리 귀를 따갑게 해 주는 口號가 되어 있습니다만, 善德王 당시 國家의 모든 權力은, 결코 國民으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 帝王이 되려면, 萬機에 優先해서 모든 權力의 源泉이 될 天機, 곧 하늘의 意思의 所在를 먼저 살피는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實踐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帝王으로서의 成敗가 左右되었습니다. 中國의 正史에서 天文志와 曆志는, 서로 機能을 달리한 別個의 것으로 獨立해 있습니다. 오늘날 天文學에서 要求하는 정밀한 觀測과 計算 따위는 오히려 曆志가 담당하던 部門이고, 天文志의 경우, 觀測對象이 日月五星과 流星, 彗星의 움직임에 있었을 것은 물론입니다만,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帝王으로서 알아야 할 하늘의 意思의 所在를 묻는 데에 있었습니다.

三國史記에서 天文志, 曆志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高麗史에서 비로소 十二志 꼭대기에 天文志, 曆志의 順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天文志와 曆志가 各已 受任事項을 달리했었다는 것, 여기에 대한 깊은 理解가 없을 때,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質問 - 瞻星臺가 天文臺라는데, 왜 山上에 놓이지 않고 平地에 놓였을까, 소박한 質問이 提起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質問의 提起者는 필시 二百인치 天體望遠鏡으로 武裝한 팔로마山上的 天文臺를 連想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瞻星臺 꼭대기 七尺四方의 井字石物에 관해서도, 그것이 天體를 觀測하는데 필요한 各種 機材와 人員을 配置하기에 充分한 空間이 되겠는가, 아닌가, 여러가지로 討論의 對象이 되어 왔고, 아까도 羅逸尼 교수로부터 모처럼 興味있는 實測報告가 있었으나, 要컨대 그것은 심히 狹窄하고 심히 不便스런 空間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到底히 오늘날의 天文臺 常識을 恰足시킬 空間은 되지 못합니다.

II

現在 最古의 天文臺라는 標語가 瞻星臺를 설명하는 패말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裏面엔, 이와 같은 天文臺가 中國 또는 그 西方에 진작 있었을 것이로되, 後世에 傳하지 않을 뿐이라는 숨은 뜻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果是 우리의 瞻星臺가 그에 先行했을지 모를 此種 天文臺를 그대로 模倣한 것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에 대해서 깊은 疑問을 품고 있습니다.

景德王때,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나서 (二日並現), 人心을 설레이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祭亡妹歌로 有名한 月明大師가 한편의 鄉歌를 지어 天體의 異變을 물리쳤다는 것인데, 遺事에 실린 兜率歌가 바로 그것입니다. 朝元殿 西小門, 內宮內院塔, 그리고 彌勒佛壁畫 등이 舞臺設定에 登場해 있어서 당시 첨성대 周邊의 狀況을 어렴풋이 짐작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鄉歌의 힘으로 天體의 異變을 물리친 이야기는 이밖에 또 融天師의 彗星歌에서 볼 수 있습니다. 善德王보다 한대 앞선 眞平王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行事엔 반드시 日官이 따르게 마련인데, 遺事엔 日官祭天의 기록이 五·六次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延鳥郎, 細鳥女, 射琴匣條의 그것 역시 善德王보다 여러대 앞선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첨성대는, 그러므로 新羅가 本來 가지고, 있었던 天에 관한 어떤 宗教的인 基本形態가 있어서, 그것이 이때 거치장스럽게 造型化된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좋을 또 몇가지 理由를 다음에 들어 보겠습니다.

討論會가 올해로 三回에 거듭되면서 好奇와 攻擊의 화살이 李龍範 교수에게 쏘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 李교수의 論文 “瞻星臺存疑” 〈震檀學報〉를 읽지 못했습니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낮, 서울서 내려오는 汽車 속에서 李교수와 자리를 같이하고, 瞻星臺가 佛教에서 말하는 須彌山을 形像한 것이라는 年來主張의 대강을 들었습니다.

須彌山世界에 관해서는 나 亦是 일찌기 Samuel Beal의 著書를 통해서 깊은 흥미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

고 오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만, 새뮤얼 빌은 19世紀 下半期 英國 聖公會 牧師로, 많은 漢訳經典과 求法僧들의 旅行記를 번역, 주석한 분인데, 그중의 하나, 須彌山世界를 그린 圖版을 예쁘게 金色으로 表紙를 裝飾해 있어서 瞻星臺와의 關聯을 聯想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善德王 당시 新羅의 知識人들이 가졌던 世界觀이라면 佛教에서 말하는 須彌山世界를 除外하고 달리 생각할 方法이 없습니다. 天帝를 演出하되, 世界의 頂上은 곧 須彌山의 頂上이 될밖에 없으며 『瞻星臺가 곧 須彌山을 形像한 것』이라는 李교수의 主張은, 그러므로 百番 옳습니다. 須彌山을 形象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先行했을지 모를 中國의 天文臺와는 처음부터 無關할 밖에 없다는 내 論法도 썩 잘 補強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그 두번째 理由입니다.

세번째 理由는, 瞻星臺라는 이름 自体에 있습니다. 遺事 善德王條 末行에 가서 「別記云, 是王代, 鍊石築瞻星臺」라는 기록, 그리고 또 그 王曆篇 奈勿王條에 「陵在古星臺西南」이라는 기록, 이 두가지가 瞻星臺에 관한 記錄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司會를 맡아 주신 俞景老교수의 말씀인즉, 이에 先行한 中國의 記錄에서 瞻星臺란 이름은 一切 發見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新羅史에서 自体年號를 가졌던 時期가 法興王 建元에서 善德王 다음인 眞德王 太和二年으로 끝나치기까지 앞뒤 一百五年을 헤아리고, 遺事의 著者は 이것을 新羅의 中古時代로 特定지웠습니다만, 신라가 가장 自己 主張을 앞세웠던 시기에 이러한 曆性대의 建立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注目해서 좋을 네번째 理由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瞻星臺 建立의 해를, 善德王 在位 十六年間の 맨 마지막 해에 가까운, 어떤 政治的 危機와 結付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오히려 그 初年의 經營으로 보아서 좋을 理由로, 在位 三年에 靈妙寺가 在位 四年에 芬皇寺가 계속 落成되었고, 거창한 皇龍寺 九層塔의 落成이 在位 十四年에 있었던 事實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關川公, 金春秋, 金瘦信 등이 한창 화려하게 女王을 補佐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은 문제는 須彌山 頂上의 天界의 主宰者가 帝釋天이나 勒當來佛이 아니고, 天帝 또는 上帝로 호칭된 데에 있습니다. 「天帝의 아들」이라고 自稱하던 解慕漱나 朱蒙의 建國說話로 올라갈 것까지는 없다손 치더라도, 延鳥郎과 細鳥女의 경우, 두 男女가 日本으로 건너가서 그나라 임금이 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때문에 新羅나라에선 해와 달이 光明을 잃었고, 日官을 시켜 天帝에 祭를 올렸더니, 당장에 光明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야기(第八阿達羅王代)는, 그만큼 天帝와의 對話가 가까운 距離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인즉, 미상불 瞻星臺와 같은 國家的인 經營이 있어서 오히려 當然하다 할 것이고, 없었다면 오히려 異常하게 보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III

끝으로 瞻星臺가 세워진 善德王 당시 新羅의 曆學에 관해서 몇 가지 疑心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로 내려오기 전 오늘의 이 모임은 모처럼 京都 大學에서 오신 敎內淸教授를 모시는 기념할 만한 學術討議場이기도 해서, 교수의 著書 몇가지를 황급하게 빌어다가 오늘의 主題에 관련된 부분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원래 나로 말하면 天文曆學에 관해서 完全無缺할 만큼 門外漢입니다. 門外漢이기 때문에 교수로부터 學的 恩德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의 하나라고 말씀드리다면, 或 逆說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事實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모르는 分野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읽은 敎內교수의 論文중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었습니다.

『李淳風(六〇二—六七〇)은…唐 高宗의 麟德二年(六六五年)부터 施行된 麟德曆의 撰者가 되었다. 이 曆法은 朝鮮이나 日本에서 儀鳳曆의 이름으로 알려졌고, 飛鳥時代에 施行된 적이 있다』.

一九七五年 中央公論社, 「中國의 科學」 五十八面に 보입니다. 日本史에서 飛鳥時代라면 廣狹 두가지 用法이 있는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廣意로는 西曆紀元 五三八年에서 七一四年까지, 一百七十四年을 包括하되, 그것을

한가운데서 半으로 잘라, 六四五年까지를 飛鳥時代로, 그리고 그 以後를 白鳳時代로 分立할 때, 그것은 狹意의 用法이 됩니다. 敎內敎授는 물론 大凡하게 廣意의 時代區分法을 念頭에 두셨음이 分明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時代區分法은, 瞻星臺 建立의 時期를 놓고 볼 때, 甚한 不条理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瞻星臺가 세워진 善德女王(六三五-六四六)의 在位年間과 狹意의 飛鳥時代와는 年代的 下限을 같이해 있을 뿐더러, 麟德曆의 採用은 두나라 모두 새로운 時代의 當來를 意味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麟德曆이 처음으로 新羅에서 採用되기는 文武王十四年(六七四)이므로, 善德王보다 二十八年 뒤가 되고, 日本의 경우, 持統天皇四年(六九〇), 곧 四十五年 뒤가 됩니다. 麟德曆이 이미 不可能한, 以上 善德女王 당시 新羅에서 使用되던 曆法으로서 可能線에 오르는 것은, 何承天의 元嘉曆(四四五)이던가, 아니면 祖沖之의 大明曆(四四五-四六四)이 됩니다. 敎內敎授의 말씀인즉, 新羅本紀와 日本書紀 干支法이 元嘉曆과 合致한다는 것이고, 그 元嘉曆을 日本으로 傳授한 나라가 바로 百濟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欲心같아서는, 何承天의 元嘉曆보다 祖沖之의 大明曆이 되어 준다면 좀 더 새로운 문제 거리를 많이 提供해 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워낙 이 方面에 無識하므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善德王 당시 新羅의 曆學은 당시 日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百濟를 따르지 못했었다는 것, 麟德曆과 같은 획기적인 新法의 受容이 善德王보다 한 世代 뒤가 된다는 것, 비록 中國의 曆學 受容에서는 뒤졌으나 仁平이라는 自体 年號를 당당하게 내세웠던 時期에 瞻星臺가 經營되었었다는 것, 이러한 事實들에 대한 吟味를 새롭게 해 주신다면 多幸이겠습니다.

瞻星臺의 天變觀測 機能

啓明大 史學科 金基協

것은 오랫동안 定說로 통해 왔는데 수년 전부터 積성대를 하나의 祭壇, 또는 紀念物로 해석하는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발표된 여러편의 논문과 토론회에서의 발표내용을 더듬어 보면 대체로 祭壇說을 내세우는 측에서 觀測臺說에 대한 反證을 제기하는 攻勢를 취하는 한편, 觀測臺說을 펴는 쪽에서는 이들 反証에 대해 解明을 하는 守勢를 취해 온 것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은 관측대설이 文獻上の 배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通說의 지위를 누려 온 사실과, 아직까지의 제단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推定的인 성격 때문에 이에 대한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집성대 자체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쌓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논쟁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지금까지 막연한 定義에 불과했던 觀測臺說이 훨씬 구체적으로 규명될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집성대가 건립될 당시의 新羅 천문학은 그 대체가 中國에서부터 어떤 經緯를 통해서든 전래된 것이었으리라고 믿어지는데, 中世의 中國에서 天文觀測이란 크게 두개의 범주—曆法을 위한 精密관측과 占星을 위한 天變관측—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筆者가 이 글에서 「觀測臺說」이란 말을 쓰면서 「天文臺說」이라는 用語를 굳이 피하는 까닭은 행여 오늘날의 「天文臺」개념에서 精密관측이 연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筆者는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해서 집성대에서 행해진 天文관측이 정밀관측이 아닌, 전변관측에 제한되어 있었으리라는 所見을 갖게 되었다.

첫째로, 집성대의 구조가 정밀관측을 행하기 위한 시설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용법 교수가 臺上의 면적이 관측기구를 수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근의 토론회에서 나일성교수는 臺上의 면적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편이 옳고 그른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교수가 臺上에서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한 渾天儀는 그 성격상 臺上에 固定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 또 정밀관측을 위해서는 좌표계의 사용이

집성대의 원래 기능이 천문관측에 있었다는